

특별취재

군산농기센터, 여성농업인 순회교육

군산시가 여성농업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2016 하절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순회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영농참여 확대에 따라 역대 부자 만들기 '돈 버는 농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일 개강편을 시작으로 12회에 걸쳐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며 농정시책 안내, 온난화 대응작물 재배 기술, 스마트팜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 폰 활용법 강의와 허브식물을 소재로 한 해충 기피제 만들기 실습으로 진행된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로컬푸드 매장의 품목 다양화와 농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난화 대응작목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호성 웰빙채소 위주로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종자배부와 재배기술교육을 통한 다품종 원예특화 작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썸머페스티벌 성료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무더운 여름 문화 피서로 준비한 썸머 페스티벌이 2주간 4회 공연이 폭염을 뚫고 관객 5,000여명을 기록하며 대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썸머페스티벌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그리고 8월 5일과 6일 총 4회로 진행. 지난 6일에는 금관양상블림이 영화, 드라마 OST 및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음악 등을 선보였다.

또한 7일에는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끼를 엿볼수 있는 방송댄스, 댄스 B-boy 등 흥겹고 열정적인 무대로 남녀노소 관객들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군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적극 도울 것이며 버스킹 공연등을 진행하여 야외광장 활성화 및 문턱 낮은 공연장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삶의 침포가 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 뇌종양투병중 탈북민에 온정의 손길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에서는 지난 4일 원광효도마을 요양병원에 뇌종양으로 장기 입원 중인 탈북민 이(39, 여)모 씨를 격려하기 위해 보안계장 및 신변보호관이 직접 고구미를 삶아 방문했는데 이에 납다른 뒷이야기가 있어 주변인들로부터 훈훈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이야기는 탈북민 이씨의 어린시절로 뒤돌아 가서, 재북직업 고향에서 험벗고 굶주린 어린 이씨에게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딸 사람으로 어렵게 구해 온 고구미를 먹었던 기억에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많은 기억이 소실되었음에도 아버지의 고구미에 대한 이러한 추억은 잊지 못하고 눈시울을 적시며 고구미를 즐겨 먹는다고 해서 이런 따뜻한 사연을 전해들은 신변보호관이 직접 고구미를 삶아 전 달하게 된 것이다.

물론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이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맛있고 소중한 기억이 아닐 수 없다. 함께 고구미를 오소도소 나누어 먹으며 재회의 의지를 약속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풍수해 · 폭염대비 안전캠페인

지난 4일 익산역 앞 광장에서는 익산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시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주)전북에너지서비스, 익산보가스협회, 익산시 자율방재단, 안전모터부서단, 원광대학교 E-SCV 봉사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대비 안전관리 수칙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안전수칙 홍보물과 홍보부채를 배부하는 등 시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캠페인 활동이 전개됐다.

이 관계자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의 여성은 안전한가? - ①성범죄 군산의 현주소

3년간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범죄 98건

성폭행과 관련한 독일의 한 공익광고가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남성 성기를 뱀의 이미지로 형상화 한 뒤 피해 여성이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일평생 그녀의 몸을 기어 다닌다는 내용이다.

이 광고에는 여성의 영혼까지 죽이는 게 성폭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건수는 대략 2만 5000건으로 하루 평균 68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혹산도 학부형 교사 윤강, 제 2의 밀양사건으로 불리는 선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 가운데 성범죄를 다룬 뉴스가 상당수다. 이에 본지는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산의 성범죄 현주소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군산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중 하나로 50대 한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와 점심식사를 한 뒤 "커피를 마시자"며 지프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군산경찰 5대 형사팀 검

매년 평균 70~80건 발생 청소년 피해 전체 52%

글 실는 순서

- ①성범죄 군산의 현주소
- ②성범죄 예방대책 및 안전시설 재점검 필요
- ③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거riminal을 보면 강간은 총 39건으로 이중 3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 군산경찰에 신고된 강간건수는 98건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통계계를 보면 군산 성범죄 수치는 더 높게 나타났다. 군산시성폭력상담소에서 집계한

지난해 성폭력 피해 인원은 60명으로 군산에서는 매년 평균 70~80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세 미만(3건), 7~13세(8건), 13~19세(21건)으로 청소년의 피해가 전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9~60세 미만이 28건(48%)로 가장 많았고 13~19세 미만 9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동급생 또는 선·후배가 13건 친족 7건, 직장관계자 5건, 데이트성폭력 5건, 낯선 사람 4건, 동계사람 2건, 서비스제공자 1건, 채팅상대자 1건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보고되거나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지역 내 성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

정된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한 전문가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 그 수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보다 피해자들의 의식 전환으로 신고 횟수가 늘어나 범죄 통계에 잡히는 수치가 전보다 많아진 것도 고려해서 봐야할 부분"이라며 "발생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갈수록 흉악해지는 성범죄가 대상, 장소, 방법 등을 불분하고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 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 등이 필요하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의 이해와 사례·참여예산 관련 토론토론 등으로 진행

군산시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016년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출범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들의 첫 번째 참여활동으로 이뤄졌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와 관련된 사업과 예산에 대해 배우고 직접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이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어린이·청소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이 예산의 편성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스스로의 문제들을 어린이·청소년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추진방향을 계획하고 방안을 수립해 보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됐다.

이번 참여예산 학교에서는 ▲예산의 이해와 사례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 교육을 통해 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참여예산 관련 토론 진행 ▲군산시 재정현황 및 어린이·청소년 행복예산 등을 이해하는 시간 ▲어린이·청소년 의원으로서 공동체 형성 및 활동내용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들

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표하여 학교, 동아리 등 주변의 의견을 듣고 모아 어린이·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제안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 복지, 안전 등의 분야에서 토론과 협의를 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를 이끌어 갈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이 참여예산 제도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의 창의적인 참여예산 활동에 대해 검토와 보안을 통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서부보훈청, 창설 55주년 기념행사 개최

전북서부보훈청(지청장 이우실)은 지난 5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국가보훈처 창설 55주년 및 보비스선포 50주년을 맞아 전 직원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복지인력에 대한 후속 기 건강관리교육 및 노후복지발전방안 토의, 응급상황 및 성폭력 대처 교육 등 간담회로 시작되었으며, 예로·건 의사환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모범공무원 및 복지인력에 대한 처장 청장 표창장을 지청장이 전수하였다.

이우실 지청장은 국가보훈처장 기념사 대독을 통해 "앞으로도 모든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기념식 후 오찬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이후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활기찬 스펀드와의 동행이란 제목의 강의를 통해 복지인력과 직원들이 어우러져 이야 기꽃을 피우며 스펀드 헤소의 장이 되었고, 웃음이 및 다과시간을 통해 사기진작의 시간을 갖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전북서부보훈청장은 노인성 질환이나 상처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가정에 보훈심검사를 파견하여 재가복지서비스 및 민간장기요양급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합질환 대상자들에게 대한 지원은 복원기금에서 후원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현대중공업 300대 규모 노상 주차장 조성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근로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7부두 앞 도로 종점 부근에 300대 규모의 노상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 도로는 조선소 도로 설치로 도로가 단절된 곳으로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2014년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가결을 통해 탄력적 주차장 지역(06:00 ~ 22:00)으로 지정되어 인근 근로자들이 이용했으나, 주차장이 따로 없어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시에서는 상시 주차가 가능한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관계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하였고, 지난 6월 군산경찰서 교통신호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차량 회차 공간 확보 등을 조건부로 가결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차선도색 등 노상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시는 조만간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



무에 복귀하는 근로자들의 주차편의에 큰 도움을 주고자 주차장 주변 인도 및 가로변 제조업체와 하수구 준 건부로 가결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차선도색 등 노상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정준기 투자지원과장은 "지난해 일 반산업단지 내 대상(주)BTO 공장 앞을 정비하여 270여대의 주차장을 조

성한데 이어 이번 노상주차장을 조성 한 것은 국가산내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산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선유도 스카이썸라인 안전조치 보강 재가동

지난 1일 발생한 선유도 스카이썸라인 인명사고와 관련, 군산시가 안전조치 지시 이행상태 여부를 점검한 후 5일부터 재가동 했다.

군산시는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 위탁업체 운영자,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근무자 정신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안전조치사항으로는 출발대 선포 대기시간을 3분이상으로 조절, 운영요원 안전교육 철저, 출발대와의 수신회 체계 3중 보강조치(무전기 모니터, 도착대기발), 하절기 영업시간 오전 8시부터 오전9시로 변경, 운영요원 교대근무 철저(성수기 탑승객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 탑승객 휴대전화 소지금지(사진·동영상 촬영 방지) 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가동 결정 이유는 사고원인이 시설결함이나 운영부주의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임시개통으로 인한 성수기 관광객 증가에 따른 공중강제체질시설 이용문의 쇠퇴 등 선유도 해수욕장의 명소인 스카이썸라인의 빠른 개장이 요구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선유도 스카이썸라인 사고로 인한 해당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운영 지연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는 상황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